

불확실한 얼굴

July, 2016



불확실한 얼굴

내 이름과 명성은 진짜일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아닐까.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유명과 무명의 가치에 질문을 던지는 전시 <유명한 무명>을 위해 7팀의 국내 작가들이 모였다. 큐레이터 김성원의 기획으로 한국 동시대 미술의 촉망받는 아티스트로 꼽히는 김영나, 김희천, 남화연, 베리명즈, 오민, 이윤이, EH가 그들이다. 전시는 출현과 소멸, 등장과 은둔 사이에서 고민하고, 알려지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강박과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은 작가적 삶의 태도와 작품의 운명에 관해 얘기한다. 그것이 어디 작가뿐이라.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접촉해 있으나 동시에 모두와 헤어진 존재이니. 산업디자인, 건축, 문예 창작, 시각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각자가 변화 가능한 가치와 동질화, 획일화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다. 문예 창작을 전공한 후 미술학을 배운 이윤이의 '한편...자식!' '날개 없이 나는 빨간 새를 보았다 다가갔을 때 그것은 총알이었다' 등의 작품은 서사적이고, 건축을 전공한 김희천이 일그러진 도시 풍경을 콜라주한 비디오 작업은 서로 다른 공간 세계의 순환고리를 직시하게 한다.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갤러리 1, 2관.

이윤이 '한편... 자식!'

16mm 흑백필름(SD 비디오 전환), 울티컬 사운드, 4분.
퓨팅 시스템, 전면 프로텍션, 최대, 마스크, 피아노선, 가변 크기, 2011.

김희천 'SOULSEEK / PEGGING / AIR-TWERKING'

HD VIDEO, 21mm, 2015.
COURTESY OF THE ARTIST, ©국제갤러리